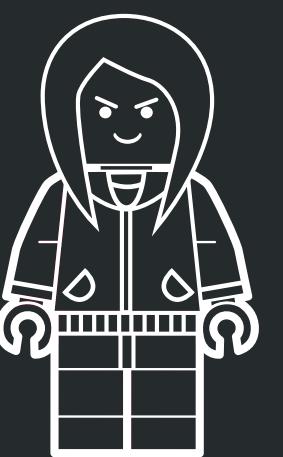


KYUNGSUNG UNIVERSITY  
VISUAL DESIGN  
YOON JI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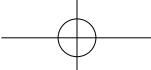


# CONTENTS

ABOUT ME  
PROFILE  
FAVORANC  
INTEREST

MY WEEK

END



A

B

O

U

T

M

E

# PROFILE

NAME YOON JI WON

BIRTHDAY 1991.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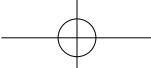
STAR SIGN ARIES(양자리)

BLOOD TYPE A

FAVORITE COLOR

HOBBY PLAY GAME

E-MAIL gone5619@naver.com



딴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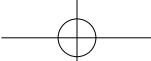
수집욕

이기적임

오타쿠

편한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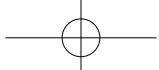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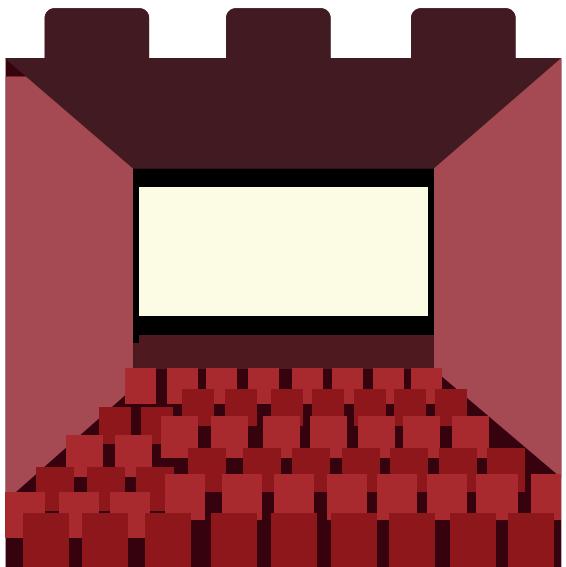
# FAVORANC

ABOUT ME





## MOVIE



내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영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혼자서도 자주 보러 가고  
재밌는 영화는 두 세 번도 더 가서 다시 보기도 한다.  
그래픽이 화려한 영화를 좋아하는데,  
기계, 우주적 느낌이 강한 SF 장르를 가장 좋아한다.  
그 다음으로는 3D 애니메이션, 판타지를 좋아한다.  
히어로 물도 굉장히 좋아한다.(마블 오타쿠)  
그래픽이 화려하지 않은 영화도 즐겨보는데,  
그 중에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를 좋아한다.  
최고는 SF 인데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  
이번에 개봉한 [인터스텔라]가 그랬다.  
그리고 만화를 좋아해서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게 되었는데, 디즈니, 픽사, 드림워克斯의 애니메이션은  
전부 꿈꾸며 챙겨보고 있다.  
특히 디즈니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극장은 CGV를 선호한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도 많이 가봤지만 역시 CGV가 시설이 좋다는 느낌이 들고 영화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가 있다. 예전에 포항쪽에 살 때 포항지점에 자주 갔는데 영화 캐릭터들의 피규어가 전시 되어 있다. 옛날에 동래지점에 갔을 때도 영화 관련 상품들을 파는 곳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요즘은 그쪽으로 안 가봐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점들이 정말 맘에 든다. 밑에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3개를 골라본 것이다. [토이스토리]도 넣고 싶었는데, 장르를 겹치지 않게 넣기 위해서 빼버렸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신에 [어벤져스를] 넣을까 고민도 많이 했다. 내 성향과 다르지만 스토리가 좋거나 잔잔한 감동, 여운을 주는 영화들도 좋아해서 그런 영화도 넣을까 했지만 간이 모자라서 빼버렸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화는 호러물이나 스토리가 막장인 영화들이다. 호러물도 스토리가 좋으면 무서워도 볼 수 있다.

### MY BEST MOVIE 3



THE LION KING

내가 본 애니메이션 중에 TOP1  
영화 속에 나오는 OST는  
하나같이 좋았고, 캐릭터,  
스토리도 매력이 넘친다.  
1994년 애니메이션인데 그때  
나온 애니메이션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퀄리티가 높다.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할게 없는  
애니메이션. 역시 디즈니  
라는 생각이 든다.  
수십 번을 넘게 봐도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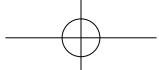
TRANSFORMERS

이런 영화는 유치하고 결말이  
대충 예상가는 스토리다.  
그러나 나에게 트랜스포머란  
영화는 인생의 무언가를  
바꿔놓은 중요한 영화이다.  
고등학생 때, 우연히  
영화관에서 보게되었는데,  
그때 느낀 것은 잊을 수가 없다.  
그래픽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다니! 이 영화로 인해  
나는 3D 그래픽에  
입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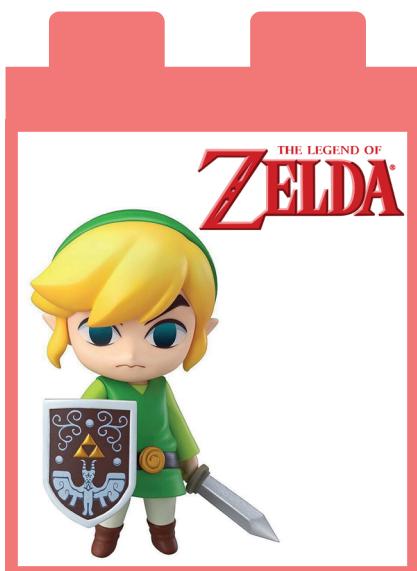
THE DARK KNIGHT

히어로물을 좋아한다.  
나는 마블의 팬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DC의 배트맨 영화.  
마블을 좋아하지만 히어로물의  
TOP1은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히어로물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스토리로 끌어간다. 이  
영화로 인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팬이 되었다. 이 감독의  
영화는 다 챙겨보고 있다.



## G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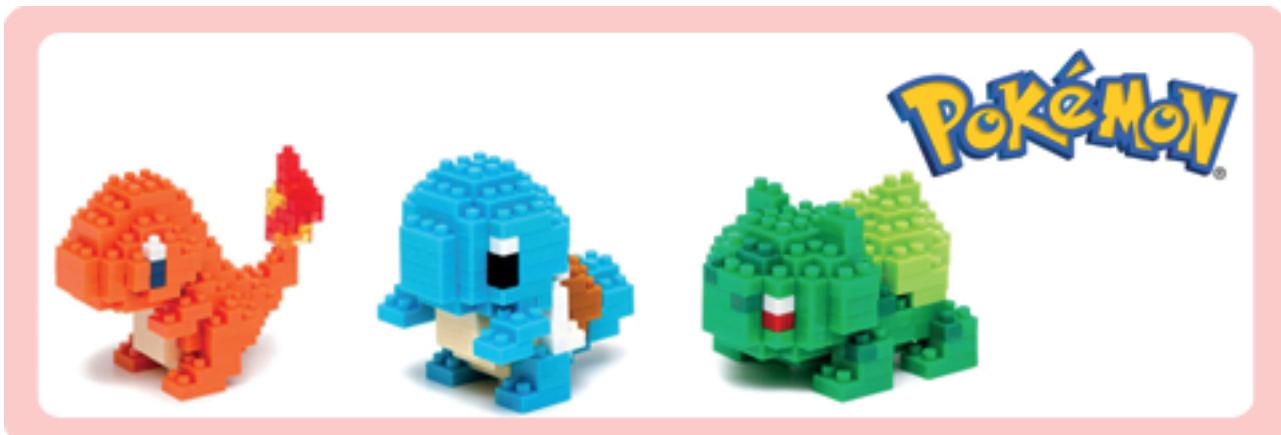
TITLE



닌텐도 게임 [젤다의 전설] 시리즈는 전부 재미있다.  
주인공 이름이 젤다가 아니라는게 충격



모바일 게임중에 유일하게 꾸준히 해오고있는  
[쿠키런]. 캐릭터가 귀엽다.



가장 좋아하는 게임인 [포켓몬스터]. 옛날버전을 플레이 하면 추억이 새록새록,  
요즘 버전은 3D그래픽으로 되어서 더욱 내 취향이 되었다.

모바일 게임부터 PC게임까지 다양한 게임을  
해봤다. RPG, FPS, AOS, 리듬게임, 캐주얼,  
액션 등, 다양한 게임 장르들을 했왔었다.  
디자인에 맞춰서 게임을 고른다고 귀여운  
게임들을 골라왔다.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포켓몬스터인데 역시 귀여워서 좋아한다. 내가  
처음으로 한 온라인 게임이 BnB였는데, 그때  
당시엔 정말 신세계였다. 심심해서 시작하게된  
게임이 이젠 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제 게임을  
좀 접을때도 됐건만 꾸준히 하고 있다.

pur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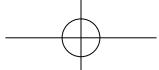
쿠키런 모든 쿠키 모으기

사이퍼즈 골드되기

포켓몬 전국도감 채우기

포켓몬스터 모든 버전 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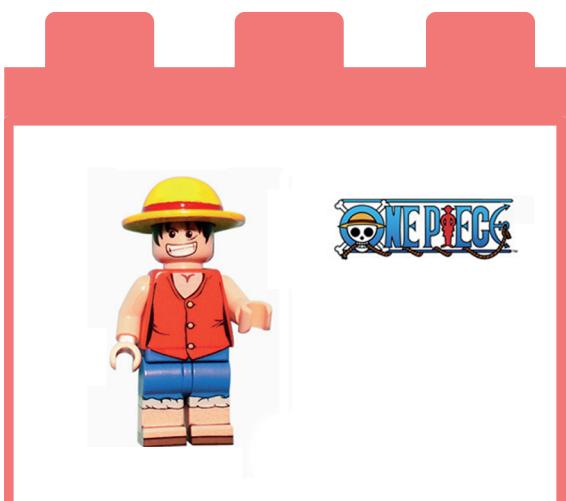
플레이스테이션4 사기



## CART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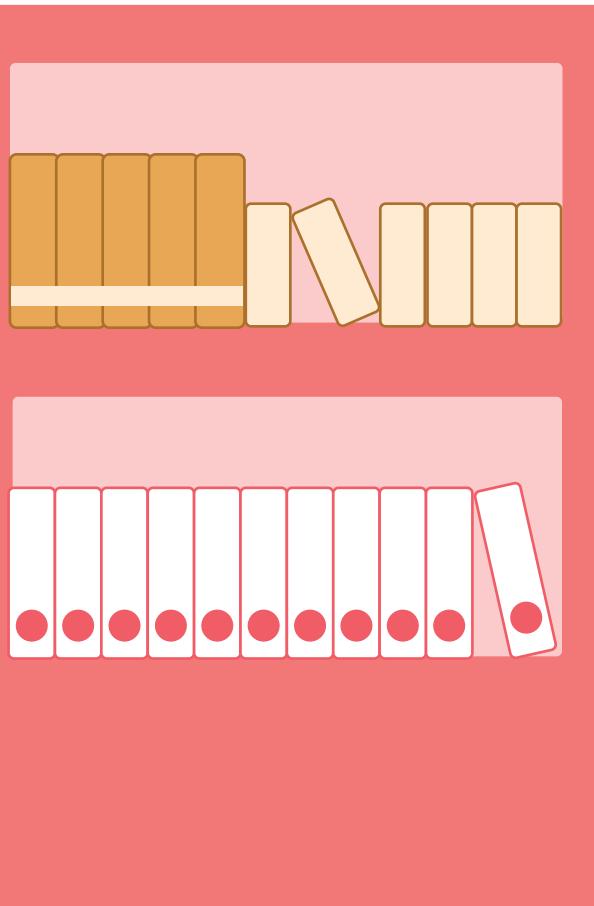


미국만화, 마블의 만화를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피터 파커(스파이더맨), 미국 만화를 좋아하게 된 건 얼마 안 됐다. 현재 그래픽노블이 5권 밖에 없는데, 그래픽노블값은 너무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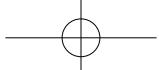


일본만화, 일본만화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접하게 되었다. 좋아하는 만화가 따로 있는데 레고로 된 루피 이미지가 있길래 원피스로 넣었다. 만화책은 장르 상관없이 재밌으면 다 좋아한다.

만화를 좋아한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유치원 때부터 세일러문을 녹화하면서 봤었다. 커가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은 잘 안 보게 되고, 만화책만 많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만화책을 사 모으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랑 돈 개념이 달라져서 마구잡이로 사지 못하고 있다. 돈 많으면 더 사는 건데... 그래도 책장 하나는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300권은 넘지 않을까? 최근에는 비싼 그래픽노블이 끌리기 시작해 버렸다...



웹툰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다. 중학교 때 만화책을 사모으기 전까진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잡지 만화책을 챙겨보면서 우리나라 만화를 접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 만화가 웹툰으로 나마 자리잡고 있어보여서 다행인 것 같다. 요즘 주목하고 있는 만화는 [여탕보고서] [전자오락수호대] 등이다. (귀여운 만화가 끌린다.) 그 외에도 챙겨보는 웹툰이 너무 많다. 많아서 여기 다 적지는 못하겠다.



# INTEREST

ABOUT ME

MOVIE

AND

CARTOON

3D 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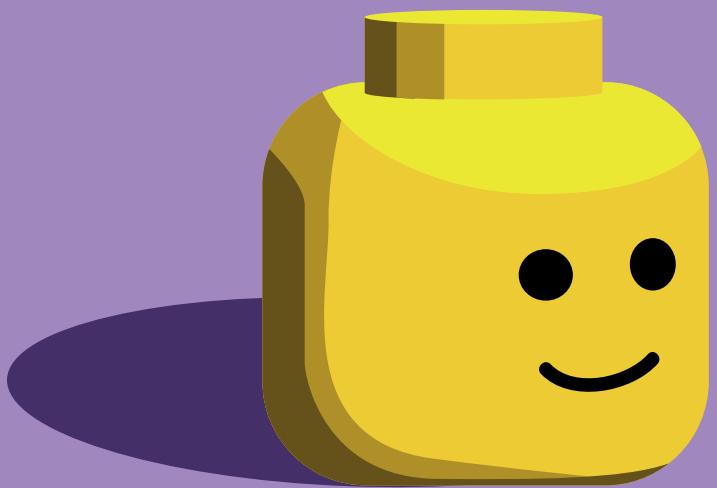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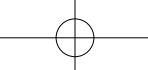
CHARACTER

중학교때까지만해도 3D  
그래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어느날 SF  
영화를 보고 나는 3D 그래픽의  
매력에 빠져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3D 그래픽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에  
관련된 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어릴때부터 만화를 좋아했다.  
만화를 좋아하면서 그 만화의  
캐릭터들도 좋아하게되었는데,  
하나하나 각기 개성이 다른  
캐릭터들을 디자인한다는건 정말  
멋진 일인것 같다.

3D CHARACTER

캐릭터를 좋아했고, 영화를 통해 3D그래픽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자연스레 3D캐릭터 쪽으로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중 하나가 [토이스토리]이다.

[토이스토리]는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이다.

그때 당시엔 3D 애니메이션은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극장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3D 그래픽으로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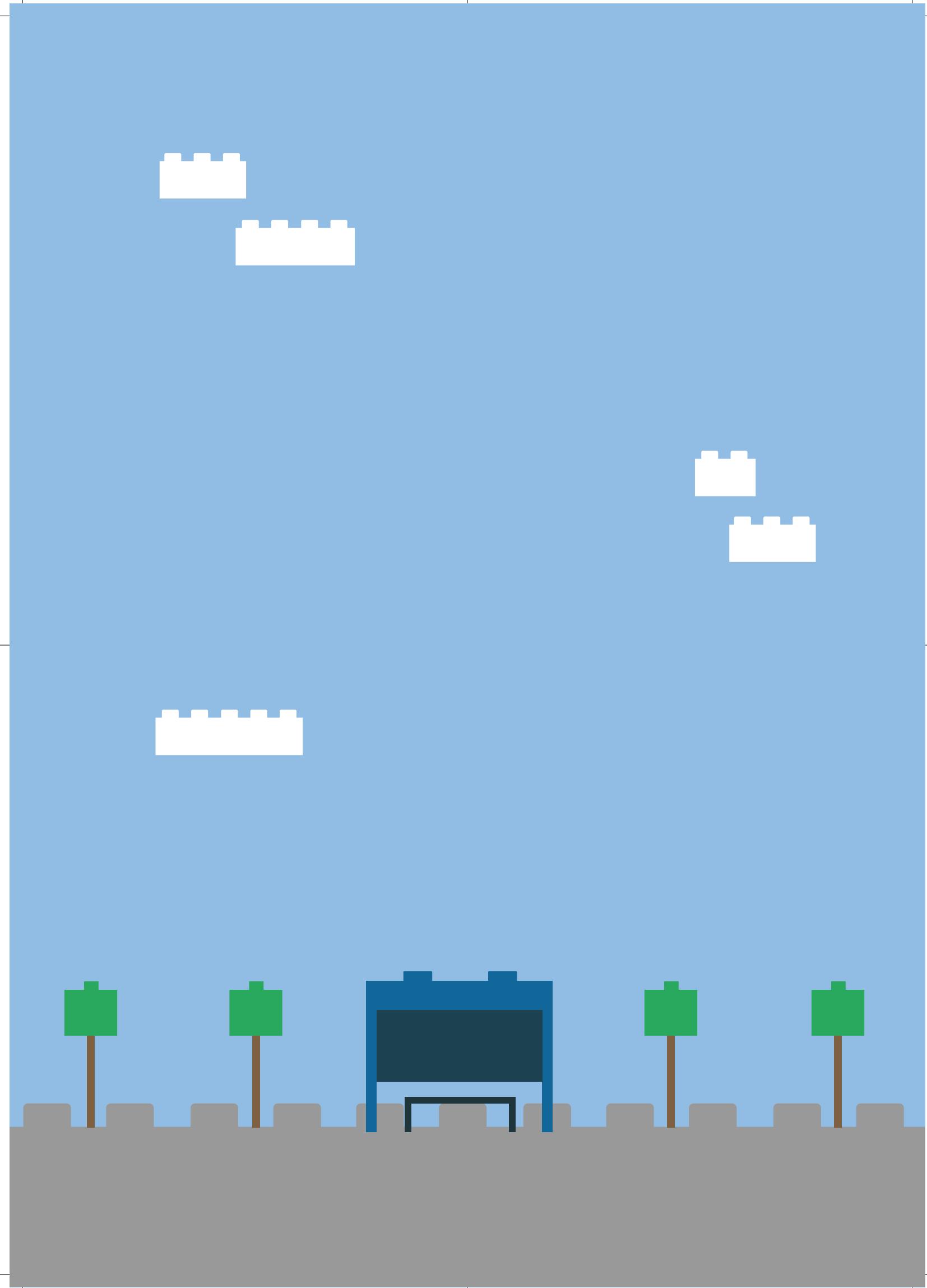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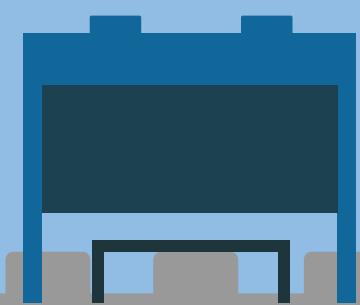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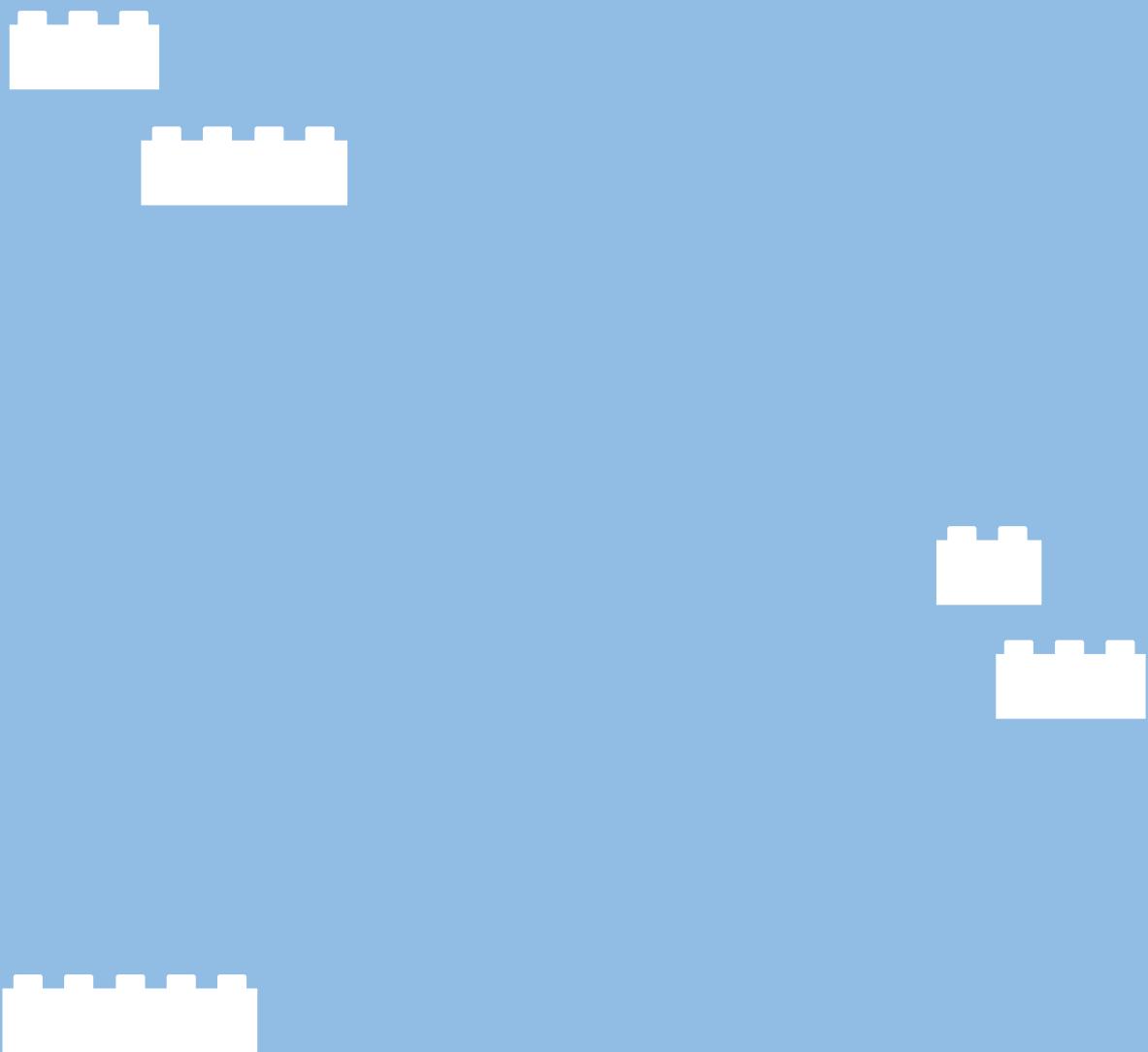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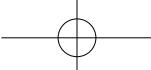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회사나 여러 페스티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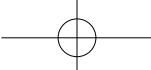
마스코트 캐릭터도 3D 캐릭터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니 3D캐릭터 디자인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휴학을 하면서 3D프로그램중하나인 3DMAX를 꽤  
많이 배워놨다, 이번 방학때 다른 3D그래픽 프로그램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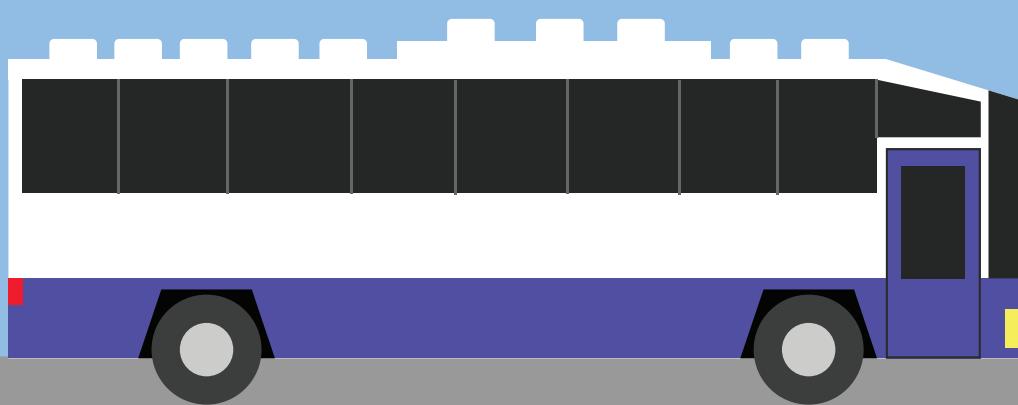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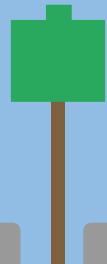
익히면서 공모전할때 3D그래픽을 활용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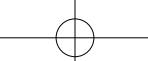




# MY WEEK

통학하는 나의 1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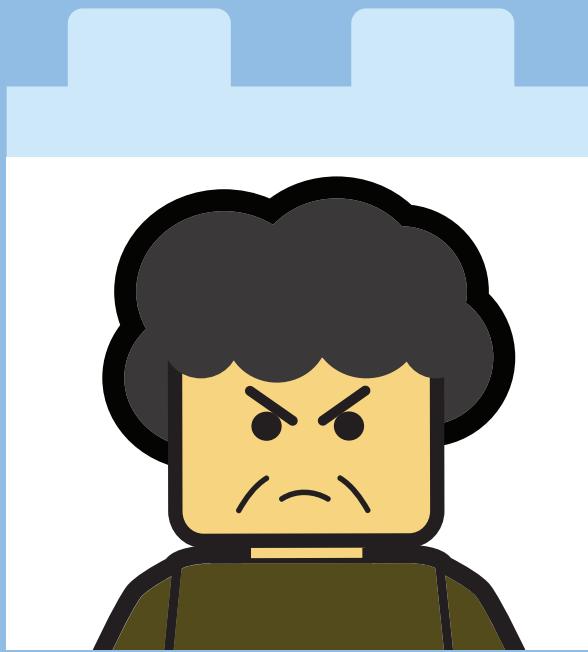




## 통학.

내가 사는 곳은 거제도.

저번 학기 중반까지는 학교앞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학을 하고있다. 다들 왜 방을 뺐냐고  
묻는데, 혼자 사니 외롭고 많이 나태해져서 그랬다.  
조금 힘들지만 학교는 일주일에 3번만 가게 시간표를  
짰고, 아침 일찍 등교하게 되어 부지런한 느낌을  
받아서 좋아서 후회는 하지 않는다.  
아침에 등교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보인다. 나처럼  
통학하는것 같은 대학생들도 보이고, 이제 수능이  
끝나서 자유로운 고등학생도 보이고, 할아버지,  
애기와 애기엄마 등 여러사람이 아침부터  
부산으로가는 버스를 탄다.



━ 아침, 표를 파시는 아주머니는 항상 불친절하다.

TIME
6:50
7:20
7:50
8:20

아침 버스시간표

학교에 통학하는건  
피곤하다. 최소 1시간  
반에서 두시간이 걸린다.  
특히 월요일엔 첫 수업이  
9시에 시작하고, 마지막  
수업은 저녁 7시에  
마치는데, 아침 7시에  
나가가야 하고,  
집에오면 저녁 9시가  
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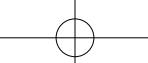
그리고 차를  
아슬아슬하게 놓치면  
너무 30분이나  
기다려야한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주말이라 미리 가 있지  
않으면 거제도 가는  
버스표가 다  
매진되버리고만다.  
예약하는것도 없다.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도착해서 지하철 문 바로  
앞부터 뛰어가  
2분만에 버스에  
탄적도 있다.  
자리가 없어서 1시간  
이상 기다린적도 있는데,  
이럴땐 느긋하게  
밥먹거나 카페에서  
시간때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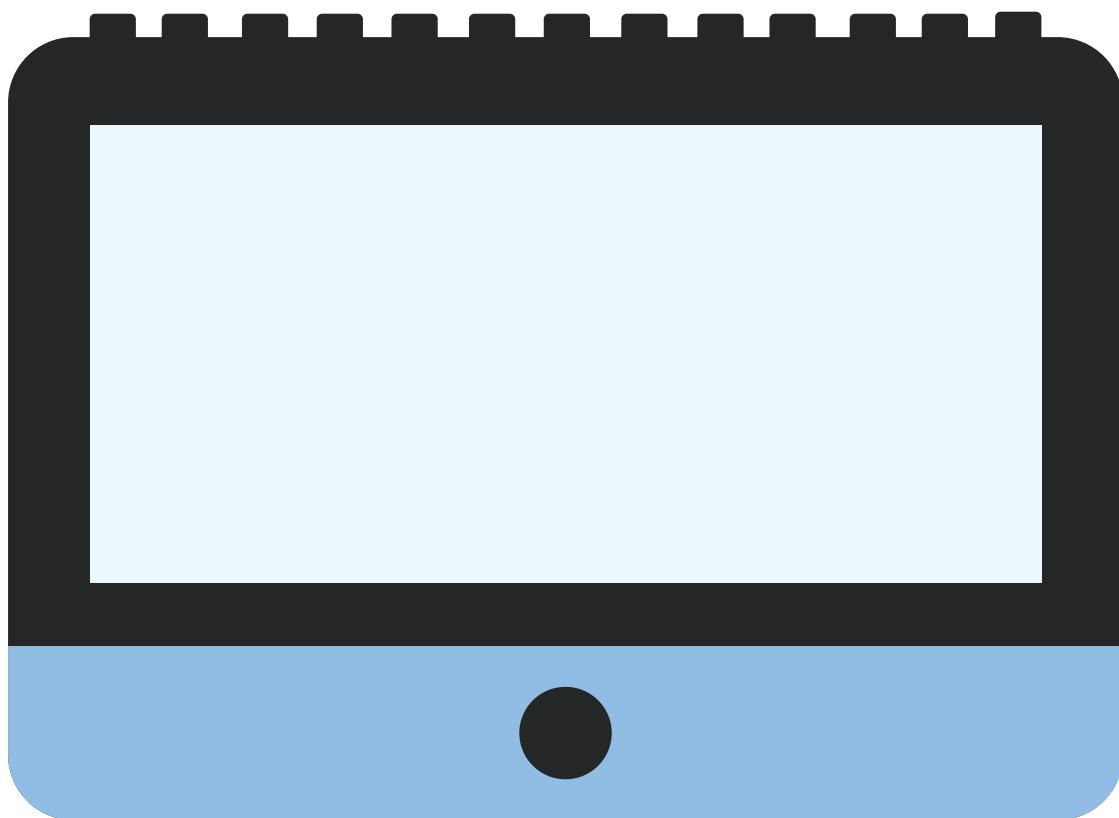
아침 등교하면서 보는 일출은 너무 눈부시다.

그냥 눈부시다.

눈부셔서 못자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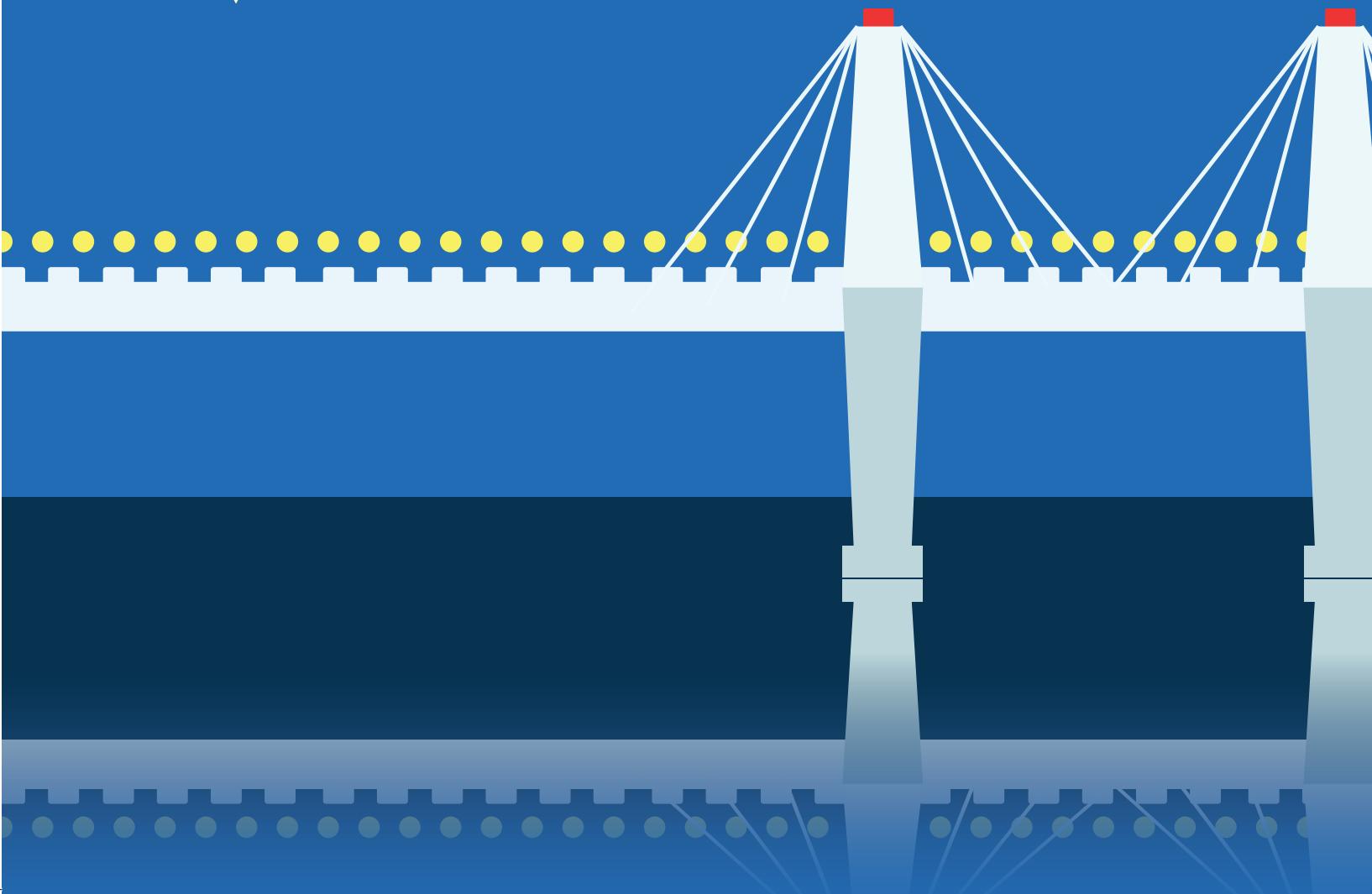
## WITH COMPU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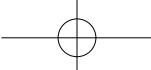


시각디자인과다보니 매주 과제가 있다.  
그래서 매일 과제와 싸우고 있다.  
는건 뻥이고 매번 농땡이치다가 하루  
남겨두고 과제를 시작한다. 지금 이것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겨우겨우  
하고있는중이다. 과제도 해야되고 게임도  
좋아해서 컴퓨터랑 떨어지지않는다.



# THE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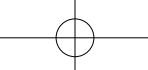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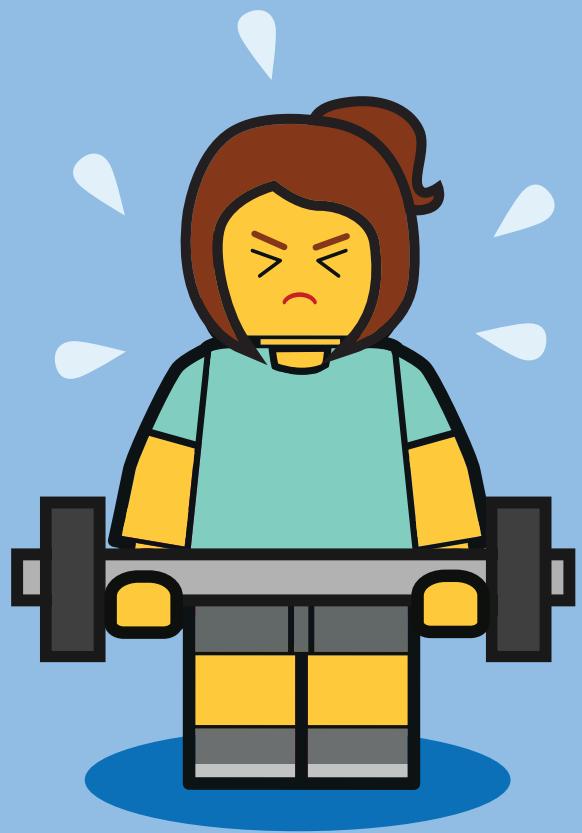
# IN NIGH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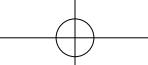
수업이 늦게 마치는 날엔 불빛을 켜놓은 거가대교를 지나간다. 거가 대교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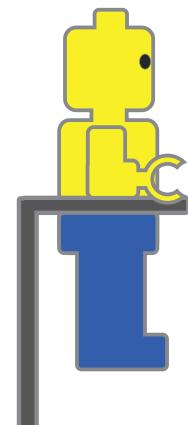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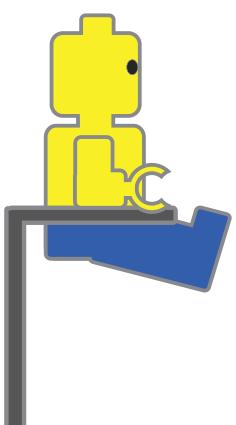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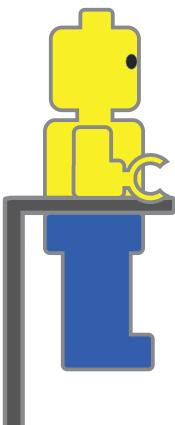
# EXERCISES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헬스를 받는데,  
일주일에 세번씩 개인 피티도  
받고있다. 정말 개인피티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운동들을 시킨다.  
내 한계는 10개인거 같은데 20개를  
시킨다. 그게 또 하면 되는게  
신기하지만 힘들긴 엄청 힘듬.  
역시 다이어트는 운동과 함께  
하는게 좋은거 같다. 요즘 살이  
빠졌단 소리를 듣는다.  
기분이 좋지만 아직 목표치에  
달하려면 한참 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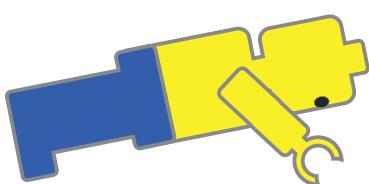
## ABDOMINAL EXERCISES



내가 자주하는 복근 운동이다. 저런 기구에 메달려서 다리를 올려 몸을 ㄴ자로 만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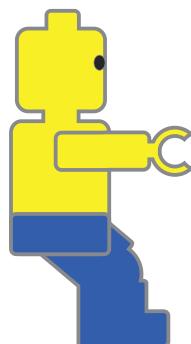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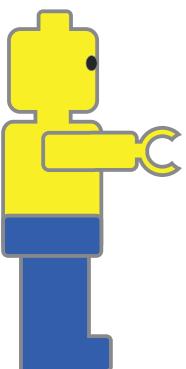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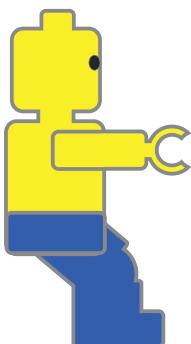
## BURPE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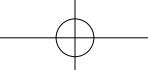
버피 테스트.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점프까지 한다. 정말 숨차는 전신운동. 칼로리 소비가 엄청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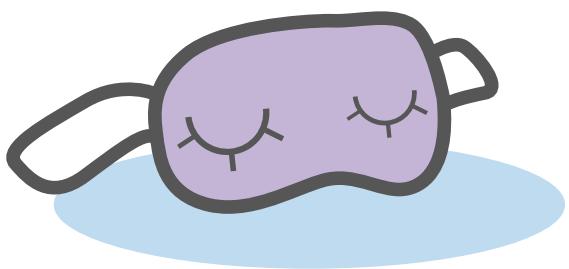
## SQUAT



다리운동에 효과적이다. 엉덩이를 쭉 빼면서 다리를 구부렸다가 피는걸 반복한다. 몸이 그자가 될수록 좋음.



# MY I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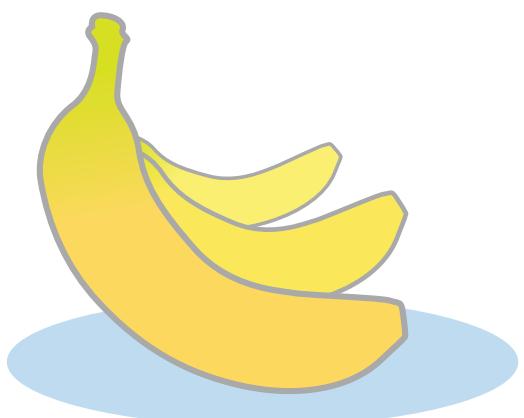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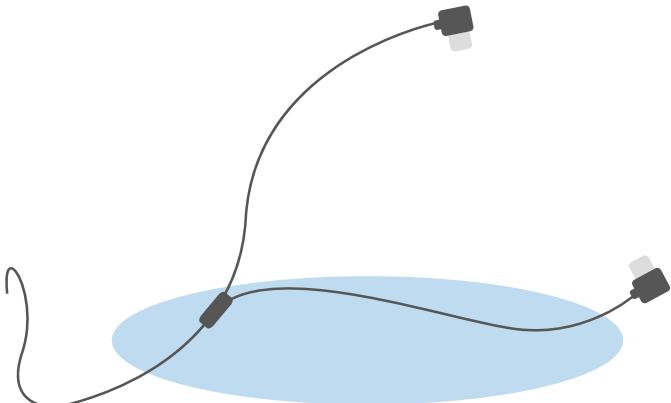


## EYE PATCH

아침에 등교하면 아직 잠이 덜깨 피곤하다.  
버스에 타서 잠을 자려고하면 아침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안대를 챙겨가서 안대를 끼고 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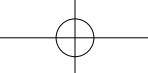
## EARPHONES

등교, 하교 총 4시간. 그 시간동안은 거의  
잠을 자지만 잠이 안올땐 노래감상을 한다.  
이어폰 없으면 노래를 들을수 없게되니  
꼭 이어폰을 챙겨야한다.



## BANANA

나의 식량 바나나.  
다이어트 때문에 밖에서 먹을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바나나 또는 삶은계란을 챙겨간다.



## WATER BOTTLE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을 많이 먹어야  
좋아서 물병을 들고다닌다.  
여기에 단백질 쉐이크를 타먹기도한다.

## GUM OR CANDY

사탕이나 껌을 들고다니면서  
입이 심심할때 씹는다.  
공복때 먹으면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됨!

